



With You

2017 Autumn

통권 26호

유엔난민기구(UNHCR)는 난민을 보호하고
영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유엔(UN)기구입니다.



모바일 소식지 연결



글로벌 쉼터 캠페인



UNHCR(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난민고등판무관사무소)



월계관 형상은 UNHCR이 유엔 총회로부터 임무를 부여받은 UN기구임을 상징합니다. A laurel wreath symbolizes UNHCR is mandated by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사람 형상은 난민을 비롯한 UNHCR의 모든 보호대상자를 상징합니다. The person symbolizes persons of concern to UNHCR



두 손 형상은 UNHCR의 난민보호 노력과 의지를 상징합니다. Sheltering hands symbolizes UNHCR's commitment and efforts to protect refugees and persons of concern.

Contents



난민보호 캠페인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03



세계 속의 유엔난민기구 — 셸터 캠페인
셸터 캠페인 소개 04
남수단 난민 오파니의 이야기 06
지드래곤과 함께하는 셸터 캠페인 10



With You가 만난 사람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시리즈 ③:
할레드 호세이니 11



한국대표부 소식
기관 소식 + 후원 소식 12



난민 배움터
로힝야 긴급구호 14



고맙습니다
후원 신청서 15



함께 배우는 난민 이야기
다른 그림 찾기 16



Cover Story



마틴(Martin)은 고국 중앙아프리카에서의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부인 줄리엣(Juliet)과 네 명의 아이들과 함께 2013년부터 콩고민주공화국 몰(Mole)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의 셸터는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마틴의 가족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 줍니다.

© UNHCR/Sebastian Rich

발행인 나비드 후세인
발행처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발행일 2017년 10월
제공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 민간파트너십(PSP)팀
디자인 슬로워크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



세계 인도주의의 날
영상 보기



“저도 한때 난민의 삶을 살았고 지금은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난민이 된다는 것은 인생의 끝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난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희망과 지원이에요.
스스로를 돕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말이죠.”

- 남수단 교육 담당 직원 데이비드 -



“유엔난민기구 직원으로서 한때 희망을 잃어버린
난민들의 삶에 생기는 작은 변화들을 보는 것은
정말 경이롭고 보람 있는 일이에요.
특히, 난민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에게 안전과 교육 등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많은 자극을 받고 더 많은 난민을 위해
일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우간다 현장 직원 그레이스 -

매년 8월 19일은 전 세계 분쟁과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맞서 일하는 모든 인도주의 활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지정된 '세계 인도주의의 날'입니다. 2003년 바그다드에 위치한 UN 본부 건물 근처에서 일어난 폭발로, 세르지오 비에라 드 멜로(Sergio Viera de Mello) 이라크 유엔사무총장 특별 사절을 포함한 구호 활동가 22명이 목숨을 잃고 100명이 부상을 입은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전 세계 인도주의 활동가들의 희생과 노고를 기억하고 이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2008년부터 세계 인도주의의 날을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을 비롯한 전 세계 강제 실항민 6,560만 명을 마주한 오늘, 전 세계 130개국에서 9,540여 명의 현장 직원을 포함한 유엔난민기구 직원 10,966명의 난민보호 활동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됩니다.

NOBODY LEFT OUTSIDE

전 세계 난민에게 희망의 지붕을

글로벌 쉼터 캠페인



쉼터 캠페인은 유엔난민기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하고 있는 3개년 캠페인으로, 전 세계 난민 200만 명에게 우선적으로 안전한 거처와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모금 캠페인입니다.

“쉼터는 난민들이 생존하고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주춧돌로서 협상 불가한 인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많은 수의 난민이 발생한 오늘날, 단 한 명의 난민도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 필리포 그란디 유엔고등판무관 -

쉼터는 왜 필요할까?



비바람과 추위 등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신체적, 정신적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위험을 차단하고 독립적인 개인 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



가족이 먹고 자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공간

2016년 쉼터 캠페인 하이라이트

작년 5월 캠페인 런칭 이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덕분에 탄자니아,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 등의 국가에서 난민들에게 안전한 거주 공간과 환경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가족용 텐트 **10,510**개 배포 및 설치



이라크에서 **9,000**명을 위해 집단 주거시설 수리

레바논에서 **146,740**명에게 쉼터 키트 전달



그리스에서 무의탁 아동을 포함한 취약 계층 **11,878**명을 위해 임대 아파트와 보호 제공

멕시코에서 **1,504**명에게 임시 거처 제공



탄자니아와 르완다에서 **46,863**명을 위해 반영구적 거처 설치

요르단에서 현금 지원을 통해 **136,240**명에게 생필품과 임시 거처 지원



캠페인 시작 1년 후, 미화 **1,000만**달러 이상 모금

쉼터 캠페인을 통해 희망을 꿈꾸는, 남수단 난민 오파니의 이야기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긴급구호 지역 중 하나로, 쉼터 지원을 시급히 필요로 하고 있는 남수단 출신 난민의 이야기를 통해, 유엔난민기구의 쉼터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난민들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만들고 있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남수단 국가 정보
국가 현황: 2011년 수단으로부터 독립한 신생국

난민 현황: 2013년 12월 이후 내전과 폭력으로 난민 200만 명 이상 발생

주변국 상황: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주변국 우간다, 남수단 난민 100만 명 수용, 난민 대다수가 여성과 어린이



두 번째 피난 여정

그렇게 오파니의 두 번째 피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키우던 가족을 빼앗기고 대부분의 재산을 뒤로한 채, 오파니는 옷가지를 넣은 작은 짐가방을 머리에 이고 딸아이를 품에 안고 남수단에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오파니 모녀는 물도, 음식도 없이 긴 피난 여정을 버텨야 했습니다.

야외에서 잠을 자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나무 아래에 자리를 잡고 혹시 모를 뱀이나 짐승의 습격에 대비해 선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파니는 곧 안전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의지를 굳게 다졌습니다.

“안전할 수만 있다면 배고픔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랜 기간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계속 걸어야 했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었지만, 안전을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었습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죽을 수 없었어요.”



죽음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다

스물여덟 살의 오파니(Opani)는 고향인 남수단 모로보(Morobo)에서 세관원으로 일하며 어린 딸 브렌다(Brenda)와 함께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쟁은 오파니의 마을까지 번져왔고 그녀는 자신과 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할아버지가 사는 이웃 마을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그들은 집집을 돌아다니며 발견하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죽인다는 말로도 부족해요. 그들은 사람을 동물처럼, 소처럼 잔인하게 살해했어요.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웃 마을에 도착한 오파니 모녀는 한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곳도 더이상 안전하지 않았고 곧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같이 피난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해보였고, 오파니는 이별을 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오히려 오파니를 위로하며 두 모녀가 빨리 떠날 것을 재촉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저들이 나를 죽이더라도 상관없다. 가서 네 딸과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거라.”



우간다 국경에서 만난 안전과 보호

오파니 모녀는 일주일의 걸을 우간다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 직원들의 모습이 보였고 오파니는 곧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전함을 바로 느낄 수 있었어요. 이 긴 여정을 버텨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국경에 도착했을 때 물과 비스킷을 받았는데 며칠 만에 처음 먹은 제대로 된 음식이었어요.”

오파니 모녀는 곧 난민촌 등록 센터로 옮겨져 음식과 물, 매트와 이불을 받았고, 공동 거주 공간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희망의 지붕 아래 미래를 꿈꾸다

비디비디 난민촌에 도착한 지 이틀 후, 오파니는 유엔난민기구 긴급구호 쉼터 키트*를 받아 브렌다와 함께 얼마 되지 않는 소지품을 들고 난민촌의 배정된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파니는 쉼터 키트를 이용해 딸아이와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만들었습니다. 비록 작고 허름한 공간이지만, 이제 오파니 모녀는 독립된 공간에서 보다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파니 모녀가 받은 쉼터 키트**
 풀과 나무를 자를 수 있는 칼과 낫, 매트, 모기장, 조리도구가 담긴 상자, 담요, 방수천, 지붕과 기둥으로 쓸 수 있는 나무, 태양광 램프, 물통과 비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파니 모녀가 쉼터 키트를 받아 만든 임시 거처 안에 앉아서 쉬고 있습니다. © UNHCR/David Azia

“지금 제 우선순위는 잠잘 곳이에요.

두 번째는 음식이고, 그 다음은 아이를 위한 약이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겐 평화가 필요해요. 다른 건 없어요. 첫 번째는 평화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유엔난민기구의 쉼터 캠페인 활동



유엔난민기구는 매년 텐트 7만 개 이상, 방수천 200만 개 이상을 구입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3단계 접근 방법으로 쉼터 캠페인을 전개하여, 긴급구호 초기부터 영구적인 해결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난 과정에서 난민의 곁을 지키며 난민 가족의 상황과 주변 환경을 고려한 가장 이상적인 형태의 쉼터 솔루션을 제공해 난민들이 더욱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Step 1

난민 구조 및 임시 거처 제공



국경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대형 긴급 텐트, 공동 거주 공간 등을 1차로 긴급히 제공하여 피난 과정에서 심신이 취약해진 난민들이 긴급 치료와 음식을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Step 2

개별 임시 거처 및 구호 물품 지원



난민들이 보다 안전한 개별 공간에서 가족들과 머물 수 있도록, 각 지역의 환경, 지리적 풍토와 기후, 사회 문화적 요소 등을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의 임시 거처와 쉼터 키트, 긴급구호 물품 등을 제공합니다.

Step 3

장기 거주 공간 모색



난민들은 평균 17년 이상을 난민 신분으로 살아가며, 유엔난민기구는 관련국 정부 및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난민들이 장기적으로 더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모색하고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파니와 같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수많은 사람이 분쟁,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르고 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빈손으로 피난을 떠난 이들은 주거, 물과 위생, 식량,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긴 피난 여정 가운데, 가족과 함께 비바람과 추위를 피해 지친 몸을 누일 수 있는 공간, 안정을 찾고 삶을 재건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가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오파니 모녀는 일 년 후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오파니 모녀가 좀 더 안전하고 장기적인 거주 환경 속에서 삶을 지속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유엔난민기구의 쉼터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지드래곤과 함께하는 셸터 캠페인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G-Dragon, 본명: 권지용)이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전 세계 난민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글로벌 셸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는 지드래곤의 후원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아티스트 지드래곤, 세계를 누비다

타고난 음악적 재능과 끼, 그리고 멋진 패션 아이콘으로서 수많은 국내외 팬을 보유하며 활발한 음악 활동을 벌이고 있는 지드래곤은 올해 6월 솔로 앨범 '권지용'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 19개 도시 순회공연을 하면서 그 누구보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지드래곤이 매년 항상 챙기고 있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생일인 8월 18일입니다.

기부 천사 지드래곤, 난민의 손을 잡다

지드래곤은 매년 자신의 생일을 맞아 장애아동, 환아 등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해 기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의 기부 동참을 독려했습니다.

“나는 다만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에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내전과 폭력으로 인해 피난길에 나선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 지드래곤 -

그러던 작년 8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처음으로 유엔난민기구의 문을 두드렸고, 더욱 심각해져 가는 난민 사태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한국대표부에 8,180만 원을 기부하였습니다.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은 지드래곤의 아름다운 선행을 받기며 “범세계적으로 난민 및 이주민 문제가 고조되고 있는 오늘날, 지드래곤과 같은 슈퍼스타의 사려 깊고 의미 있는 기부를 통해 많은 국민이 난민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YG Entertainment

난민과 함께하는 서른 번째 생일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드래곤은 어김없이 전 세계 난민을 향한 관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계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내전 및 폭력 사태로 올해에도 더 많은 난민이 피난길에 올라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다. 이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자신의 서른 번째 생일을 맞아 8,180만 원을 후원금으로 전달했습니다.

“난민들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임시 거처를 지원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난민들에게 잠시라도 쉼 곳을 만들어주는 데에 나의 작은 정성을 보태고 싶다.”

- 지드래곤 -

지드래곤과 함께하는 셸터 캠페인

올해 지드래곤이 전달한 소중한 기부금은 전 세계 200만 난민에게 임시 거처와 안전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유엔난민기구 셸터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고국에서의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피난길에 오른 전 세계 난민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보호받고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지드래곤과 함께 셸터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 시리즈 ③ 할레드 호세이니



할레드 호세이니 친선대사 활동 더 보기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는 누구일까요?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UHCR Goodwill Ambassador, GWA)는 기구의 수장인 유엔난민고등판무관과 함께 유엔난민기구를 공식적으로 대표하는 ‘대사’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친선대사들은 자신의 유명세,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유엔난민기구의 활동과 전 세계 난민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안젤리나 졸리 글로벌 특사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16여 명의 친선대사가 활동 중입니다. 이번 가을호 소식지에서는 세 번째 친선대사 시리즈로, 소설 ‘연을 쫓는 아이(The Kite Runner)’의 작가로 국내에서도 잘 알려진 할레드 호세이니(Khaled Hosseini)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호세이니, 그도 난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호세이니는 아프가니스탄 카불 출신으로 그 자신도 난민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외교관인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 파리에서 체류하던 십 대 시절 소비에트 연방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있었고, 호세이니의 가족은 고국에서의 분쟁과 폭력을 피해 미국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호세이니는 2006년부터 유엔난민기구의 친선대사로 활동해오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차드, 이라크, 요르단, 우간다 등 여러 국가의 난민촌을 방문해보면서 다양한 난민 보호 활동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간다의 남수단 난민을 만나다

호세이니는 지난 4월, 현재 가장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긴급구호 지역 중 하나인 남수단 긴급구호 활동을 돕기 위해 우간다 난민촌을 찾아가 남수단 난민들을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끊이지 않는 분쟁과 폭력, 가뭄으로 남수단에는 현재 2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고 주변국 우간다는 100만 명 이상의 남수단 난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호세이니는 우간다에 거주 중인 남수단 난민들이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셸터 캠페인 활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해상 난민들을 위해 전하는 ‘바다의 기도’

지난 9월 초, 호세이니는 시리아 난민 아이 아이란 쿠르디의 사망 2주기를 맞아,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위험한 바닷길로 피난하고 있는 모든 난민을 기억하며 ‘바다의 기도(Sea Prayer)’라는 글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이 글은 시리아 난민 아버지가 유럽으로 해상 피난을 떠나기 전날 밤, 자신의 무릎에서 잠든 아이에게 들려주는 가상 독백문입니다.

바다의 기도 - 할레드 호세이니 저

사랑하는 마르완,



어린 시절 내가 너의 나이였을 때台海 여름이 되면 네 삼촌과 흙수 인막의 할아버지가 농가 옥상에 담장을 깔고 잔이 들어 올린 나무가 바람에 살랑이는 소리, 밭소 울음소리, 할머니의 요리 소리를 들으며 깎았다. 동쪽에서 떠오르는 짧은 테두리를 한 단감같은 태양을 보며 시원한 아침을 맞곤 했다. 네가 결혼했을 때기 시작했을 때 너를 그곳에 데리고 갔는데, 네 엄마는 야생화론 뒤덮인 푸른 들만의 손때를 보여주려 널 안고 이리저리 다녔어. 그 농가도, 거칠게 그늘려 있던 들밭도, 아버지와 삼촌이 땀을 만들던 작은 개울도, 내 기억 속의 흙수를 너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북적이던 도시의 모스크라 교회, 신선한 농작물과 금 펜던트, 드레스를 놓고 흥정하던 시장, 키베 튀김 냄새가 나던 복잡한 거리, 네 엄마라 시계 탑 앞에 산책하러 갔던 추억까지.

하지만 하늘에 날아다니는 용알들, 시위에서 굶주림, 강제로으로 이어진 이 모든 싸움이 우리가 지내왔던 모든 행복한 시간을 마치 끝처럼, 거짓말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어. 폭격으로 패인 곳이 수영할 수 있는 웅덩이가 되고, 탁한 피가 선홍빛 피보다 더 나은 소식일뿐, 엄마라 여동생, 친구들이 무너진 잔해 속 콘크리트와 벽돌 사이 눈부시게 흰 빛들기에 버춰진 작은 편린으로 발견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현실 속에서 말이야.

네 얼마나 지금 여기 달빛이 바치는 차가운 해변가에서 웃는 아이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걱정하는 여인들과 함께 있어. 이곳에 있는 많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에리트레아, 시리아인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리는 동시에 두려워하고 있단다. 모두가 '집'을 찾고 있어. 우리는 초대받지 못한 손님들이라고 환영받지 못할 손님들이라고 두려워하지만, 파도 너머 '당신을 반만이라도 안다면 더 친절하게 대할텐데'라고 속삭이는 네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달빛 아래 바친 네 열매를, 단잠에 빠져 잠겨있는 그들같은 네 속눈썹을 보며, 내 손을 꼭 잡으면 편안할 거라고,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말해주었어. 아무 힘도 없던 내 바람별인 딸이지만, 오늘날 이 바다가 얼마나 깊고 넓고 차가운지 알고, 또 널 보호하기에는 터무니없이 약한 아버지라 그저 신께 간절하게 기도드린다. 배가 떠나면 공치는 망망대해 위 작은 점일뿐일 우린들 부디 안전하게 이끌어주기를. 마르완, 너는 그 누구보다 이 아파한데 소중한 존재야. 이 기도를 바다도 알 거라고 믿는다. 인살라.

© Khaled Hosseini

함께 만들어가는 난민보호

친선대사 할레드 호세이니의 다양한 활동이 나눔의 씨앗이 되어, 더 많은 사람이 전 세계 난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함께할 수 있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기관 소식

2017년 난센 난민상 수상자 발표

“종교와 배경, 문화와 상관없이 학교는 모든 아이에게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유엔난민기구는 난민법의 근간을 마련하고 난민 처우 개선에 크게 기여한 프리드토프 난센(Fridtjof Nansen)의 정신을 이어받아, 매년 전 세계 난민보호 활동에 헌신한 개인 혹은 단체에게 난센 난민상(Nansen Refugee Award)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난센 난민상은 나이지리아 동북부에서 난민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온 자나 무스타파(Zannah Mustapha)가 수상하였습니다. 무스타파는 무장세력 보고하람의 주요 공습 지역인 나이지리아 마이두구리(Maiduguri)에 2007년 학교를 설립하여 난민 아이들에게 무상 교육뿐만 아니라, 무상 급식, 교복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난민 보호 활동에 앞장서 왔습니다.



제10회 외교부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참가

유엔난민기구는 지난 7월 6일부터 이틀간, 외교부와 서울시, 부산시가 공동주최하는 제10회 국제기구진출 설명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총 7개 국제기구가 참여한 이번 설명회에서 유엔난민기구 존 토마스 인사 담당자는 유엔난민기구 취업을 위한 경로, 이력서 작성법, 면접 준비 팁 등 다양한 노하우를 소개했으며, 사전에 외교부를 통한 입사지원자 중 서류 합격자 6명을 대상으로 실제 면접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면접을 제외한 모든 발표 내용은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unrecruit.mofa.go.kr)에서 영상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를 포함한 총 5개 국제기구는 6일 서울시 설명회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채용 상담 및 홍보 전시회를 통해 국내 인턴십 및 채용 안내, 기구 활동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사진 출처: 외교부 국제기구 인사센터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 방향 토론회 개최

지난 8월 24일, 유엔난민기구는 국회인권포럼, (사)아시아인권연맹과 공동으로 '아시아의 난민 인권 개선 맥락에서 본 한국 난민 정책의 중장기 발전 방향과 난민법 개정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난민법 제정 4주년, 난민제도 시행 23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의 난민 정책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난민법의 중장기 발전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나비드 후세인 유엔난민기구 한국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난민 보호 활동이 곳곳에서 많은 도전에 당면한 오늘날,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이자 유일하게 난민법을 시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난민 환영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고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일표, 안상수, 김중석, 송희경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하용국 법무부 난민과장, 최계영 서울대 교수, 시민단체 연대모임인 한국난민지원네트워크를 포함하여, 정부, 국회,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에서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계 인도주의의 날 토크 콘서트 공동 주관

유엔난민기구는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KCOC)와 총 28개의 정부, 민간단체, 국제기구가 함께 주최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 행사에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8월 6일 개막행사를 시작으로 19일 토크 콘서트까지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6일 개막행사에는 VR 체험, 동영상상 사진 전시, 도서 및 긴급구호 키트 전시 등으로 시민들에게 인도주의의 의미에 대해 알리고 인도주의 활동의 체험을 독려했습니다.

18일 토크 콘서트에는 공교민주공화국 출신 난민이자 광주대 교수인 용비 토나 씨를 비롯해 사진작가, 분쟁 전문 다큐멘터리 감독, 국제구호 활동가 등 총 6명의 다양한 분야의 연사들이 인도주의에 대한 경험과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유엔난민기구의 단편 다큐멘터리 <경계에서>를 상영해 정우성 친선대사의 목소리를 통해 레바논에 살고 있는 시리아 난민 가족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국제협력단 '작은 영화제'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8월 16일 사내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작은 영화제'를 개최, 유엔난민기구의 단편 다큐멘터리 <경계에서>를 상영하였습니다. '작은 영화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외교부와 함께 주최 및 후원 기관으로 함께한 세계 인도주의의 날 캠페인의 일환으로, 유엔난민기구의 영상을 통해 사내 임직원의 간접적인 인도주의 현장 체험을 돕고 난민에 대한 관심을 독려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사진 출처: 한국국제협력단(KOICA)

후원 소식

여행작가 김남희 씨 시리아 난민 후원금 전달

'유럽의 걷고 싶은 길', '길 위에서 읽는 시' 등 다수의 여행 저서를 출간한 여행작가 김남희 씨가 다음(DAUM)카카오 스토리펀딩 사이트에서 피플펀딩(제목: 길 위의 여행가 김남희의 노트, 2017년 1월 2일부터 6월 25일까지 진행)을 통해 모은 금액을 시리아 난민 후원을 위해 유엔난민기구에 전달했습니다. 김남희 작가는 유엔난민기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비록 금액은 적지만 여러 사람의 마음이 모인 돈이기에 시리아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곳을 찾았고 유엔난민기구라면 이런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라고 생각하고 전달하게 되었다"고 후원 계기를 밝혔고, 시리아 등 중동 지역에서 만난 난민 가족의 이야기와 스페인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만난 난민 아이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남을 돕는 일은 여유가 생겼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 저마다 가진 다양한 재주를 살려 자신이 끼여 할 수 있는 만큼부터 해보면 좋겠다"고 후원에 대한 생각을 덧붙이며,

유엔난민기구에 앞으로도 지구상의 수많은 난민을 위해 애써달라는 당부의 말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번 후원금은 시리아 난민 지원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캠페인 후원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 인터뷰 풀버전은 유엔난민기구 블로그(blog.naver.com/unhcr_korea)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김남희 작가

2017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2017년도에도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주신 후원자님, 고맙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우편 비용을 절감하여 보다 많은 난민을 지원하고자 기부금 영수증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기부 내역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유엔난민기구에 등록된 분들은 홈택스(www.hometax.go.kr)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를 통해 직접 기부 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을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관련 기타 문의 사항은 전화(02-773-7272) 또는 이메일(withyou@unhcr.or.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용 주민등록번호 등록 여부 확인 방법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 www.unhcr.or.kr	▶	페이지 중앙 '나의 후원' 클릭 후 로그인
기본 정보 조회/변경	◀	나의 회원정보

유엔난민기구-신세계사이먼 사회공헌 캠페인 파트너십 체결

유엔난민기구 한국대표부는 신세계사이먼과 지난 9월 13일 유엔난민기구 사무실에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협약 체결을 통해 신세계사이먼은 유엔난민기구가 전 세계 난민들을 위해 전개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전 점포(시흥점, 파주점, 여주점, 부산점)에서 진행된 릴레이 캠페인의 성공적인 호응에 힘입어 올가을 시흥점과 파주점에서 다시 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의 센트럴 가든에는 동전을 던질 수 있는 '소망분수대'가 설치되어 모금액 전액은 유엔난민기구를 통해 전 세계 난민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입니다.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난민보호 캠페인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27일까지 키자니아 서울 및 부산 지점에서 어린이를 위한 난민보호 직업 체험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 기간 동안, 서울 지점에서는 모형 벽돌을 활용해 직접 헬터를 지어보는 체험이, 부산 지점에서는 헬터 모양 종이 저금통을 접어 난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체험이 진행되었고, 많은 어린이가 방문객이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키자니아와 함께하는 '희망의 헬터 만들기' 캠페인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2018년 1월 28일에 다시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자 Q&A

유엔난민기구와 함께해주시는 모든 후원자분께 감사드리며, 전화와 이메일로 문의하시는 궁금한 사항들을 모아 소개해드립니다.

Q. 난민촌으로 봉사활동을 가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현지의 열악한 사정과 안전 문제로 유엔난민기구는 전문 훈련을 받은 직원들에 한해 난민촌에서의 활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단,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엔난민기구 행사에 자원봉사자가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공고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후원자 Q&A 보기

Q. 유엔난민기구 후원 계좌로 직접 후원금 보냈습니다. 입금한 후원금에 대해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통장 입금으로 후원금을 송금한 경우 후원자님의 정보와 후원 내역이 유엔난민기구 후원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어야 추후 국제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확인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후원금 송금 후 유엔난민기구 후원자관리팀(02-773-7272)으로 연락하셔서 후원자님의 정보와 후원 내역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제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유엔난민기구 후원관리 시스템에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로HING야 긴급구호

유엔난민기구는 72시간 이내에 최대 60만 명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긴급구호 역량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전 세계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 생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남수단 등 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긴급구호 지역뿐만 아니라, 지난 8월 폭력 사태로 몇 주 동안만 수십만 명의 난민이 유입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지역에서의 로HING야 긴급구호 활동을 전제드립니다.



로HING야 긴급구호 영상 보기

로HING야, 폭력 사태를 피해 피난길에 오르다

2017년 8월 25일 미얀마 남쪽에 위치한 라카인(Rhakine) 주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난 이후, 9월 말 기준 총 50만 명이 넘는 로HING야 난민이 방글라데시에 도착해 보호를 구하고 있습니다. 로HING야족은 무슬림 소수민족으로 수십 년간 차별과 극심한 빈곤을 겪으며 무국적자로 살아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많게는 2만 명이 이상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고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여성과 아이들입니다. 이들은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숲과 들판에 숨기도 하면서 노부모와 어린아이들을 이끌고 수일을 산과 강, 바다를 건너 굶주리고 병약한 상태로 방글라데시 남동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제 남편은 마을에서 총에 맞아 죽었어요.

저는 제 아들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도망 나왔고요.

저희는 필요하면 어딘가에 숨기도 하면서 3일을 걸어왔어요.

산길이 축축하고 미끄러워서 끊임없이 넘어졌어요.”

- 20세 로HING야 난민 -



포화된 두 개의 난민촌, 오늘 밤 당장 머물 곳이 없습니다

유엔난민기구가 방글라데시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쿠투팔롱(Kutupalong)과 나야파라(Nayapara) 두 개의 난민촌에는 수용 가능 인원을 두 배나 초과한 7만 8천 명 이상이 머물고 있어 난민촌과 그 주변 지역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새로 방글라데시에 유입된 사람들은 주로 남동 지역에 흩어져 이미 그곳에 도착한 다른 난민의 집이나, 학교, 복지관 등 공동 시설에서 머물거나, 길가에 임시 거처를 세워서 매일 밤을 근근이 버티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지 주민들도 자기 집을 내주며 도움을 함께하고 있지만, 점점 더 사용 가능한 공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난민이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어, 더 많은 긴급 임시 거처와 구호 물품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유엔난민기구의 긴급구호 활동

긴급구호 전문 UN기구인 유엔난민기구는 쿠투팔롱, 나야파라 두 개의 난민촌을 중심으로 긴급구호의 최전선에서 난민들에게 긴급 임시 거처와 옷, 방수천, 취침용 매트 등을 배포하고 있으며, 보호자 없이 홀로 피난길에 오른 무의탁 아동 등 취약 계층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 의료 서비스, 가족 재결합 서비스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는 10월 초 기준, 5회 이상의 항공편을 통해 12만 명 이상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구호 물품을 방글라데시로 공수하여

가족용 텐트, 방수천, 옷, 취침용 매트, 담요, 모기장, 물통 등 필요 물품을 난민들에게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물품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규모와 심각성을 고려해 로HING야 사태는 지난 9월 중순, 가장 높은 긴급구호 단계인 3단계 긴급구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분쟁과 폭력을 피해 방글라데시에 도착한 로HING야인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긴급 임시 거처와 구호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유엔난민기구가 추후 6개월간 추가로 필요한 기금은 미화 8,370만 달러(10월 초 기준)입니다. 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긴급구호 후원에 참여해주세요.



*긴급구호 후원은 15페이지 후원 신청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로HING야 긴급구호

“분쟁과 폭력, 박해를 피해 방글라데시로 들어온 50만 명 이상의 로HING야 난민이 오늘 밤 당장 머물 곳을 찾고 있습니다.”

후원 신청서

신규 후원 신청을 희망하거나, 기존 후원자 중 추가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후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자 정보 이미 정기 후원을 하고 계신가요?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성함, 생년월일, 휴대전화에만 표시

성함 _____ 생년월일 _____

휴대전화 _____ 이메일 _____

주소 _____

신규 후원자인 경우, 후원 관련 정보 수신에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후원자님 후원정보는 후원관리 목적 이외에는 어떤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유엔난민기구의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유엔난민기구 홈페이지(www.unhcr.or.kr) 하단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금 정보 일시 후원의 경우, 아래 금액 1회만 출금 기존 후원 계좌를 사용하시겠습니까? 예 아니오 — ‘예’인 경우 기금선택, 후원금액에만 표시

은행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명 _____ 예금주 생년월일 _____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주세요.

기금선택 쉐터 캠페인 — GD와 함께하는 쉐터 캠페인 전 세계 긴급구호 — 로HING야 긴급구호, 남수단, 예멘, 나이지리아 등 가장 필요한 곳에 시리아 긴급구호

- 후원금액
- 매월 3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매월 1만 원씩 정기 후원하겠습니다
 - 100만 원 후원으로 난민 다섯 가족에게 경량텐트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1회만)
 - 50만 원 후원으로 난민 3,000명을 살리는 긴급구호 의료키트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1회만)
 - 20만 원 후원으로 난민 열 가족에게 비바람과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방수천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10만 원 후원으로 난민 열 가족에게 취침용 매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1회만)
 - 기타(정기 일시) _____ 원

이 내용은 후원금 사용 예시이며, 보내주시 후원금은 전 세계 난민을 위해 각 지역의 수요 및 모금 현황에 따라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방식으로 사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을호 소식지를 참고하세요.

*정기 후원자가 일시후원하는 경우, 본인의 정기후원금에 위의 일시후원금이 1회만 더해져 출금되며, 약정서가 본인의 정기출금일 이후에 도착하는 경우, 익월에 출금됩니다.

*출금일에 잔고 부족 등의 이유로 미 출금된 경우, 당월 25일(10월 출금) 또는 익월 5일(20, 25일 출금) 1회에 한해 재 출금됩니다.

*유엔난민기구에 후원하시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과 법인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이 회원 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및 결제정보 기재에 동의하여 약정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예금주 _____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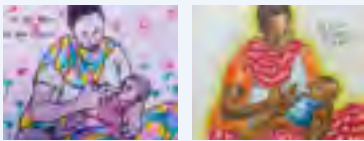
작은 보호의 손길이 가져오는 큰 변화,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다른 그림 찾기

난민 가족이 임시 거처 안에서 가족과 함께 머물고 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여 다른 부분 다섯 곳을 찾아보세요!

퀴즈의 정답을 사진을 찍어 문자(1666-5147)로 '2017 가을호/후원자명/우편물 받으실 주소(예: 2017 가을호/홍길동/서울시 중구 무교로 6)'를 기재하여 11월 30일까지 보내주시는 분 중 일부 추첨하여 선물을 드립니다.

*신전화(좌), 이현선(우) 후원자님을 비롯해 지난 소식지 퀴즈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후원자분께 감사드립니다.



With You 소식지 설문조사 이벤트에 참여해주세요!

보다 나은 소식지를 제공드리기 위해 후원자님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유엔난민기구 기념품(에코백, 가족팔찌, 우산 등 무작위 추첨)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기간: 2017년 11월 30일까지
- 참여방법: 우측 QR코드를 스캔하여 설문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스마트폰 기종에 따라 아이폰, 안드로이드 QR코드 앱 설치 후 스캔을 통해 앱을 실행하면 설문 조사가 시작됩니다)

